

Japan Weekly Digest

2012. 3. 10. ~ 2012. 3. 16

□ 금주의 이슈

- 일본 처음으로 중국을 WTO에 제소
- 원화 대비 엔저로, 일본업체 경쟁력 회복 기대
- 일본브랜드 연대, 한류방식을 활용 해외진출

□ 일본기업전략

- 동북지역 부품중소기업, 「아쿠아」 효과로 활기
- NEC, 인건비 절감을 통한 고비용구조 개선
- 아사히카세이, 미국 의료기기 대기업 매수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경제산업성, 환경도시 수출 지원
- 신흥국 중간층 겨냥한 전략 수립

□ 보고서 리뷰

- 『글로벌 모노즈쿠리 프로젝트 : 최종보고서』
산업경쟁력 간담회, 3월13일



대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일본 처음으로 중국을 WTO에 제소

- 일본이 미국·EU연합과 공동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였는데 일본이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
- 일본정부는 환경대책기술 제공을 통해 중국에 개선조치를 요구해왔으나, 중국 측이 거절. 작년말 중국정부는 하이브리드차 등에 사용되는 모터용 희토류를 중점 관리하기로 발표
- 경제산업성과 민간기업들은 WTO에 제소하였지만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, 지스프로시움 사용량을 앞으로 1~2년내 30%이상 절감하고 가전제품의 희토류 대체품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

□ 원화 대비 엔저로, 일본업계 경쟁력 회복 기대

- 작년 말부터 원화에 대한 엔화가치 하락폭은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하락폭보다 큼
 - 원화에 대한 엔화약세가 진행되어 자동차, 반도체 등 한·일간 경합관계에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엔화의 달러 환율은 약 11개월만에 달러당 84엔대까지 하락. 작년 말 이후 8% 하락. 한편, 엔화의 원화 환율은 1원당 0.074엔대로 작년 말 이후 12% 하락

□ 일본브랜드 연대, 한류방식을 활용 해외진출

- J리그와 후지TV 등 15개 콘텐츠사업자들이 외식, 소매, 식품기업 등과 파트너쉽을 맺어「저팬브랜드」를 해외에 확대, 한류브랜드를 중심으로한 한국기업들의 상품판매 방식을 벤치마킹
 - 일본의 콘텐츠산업은 단일제품 판매위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, 현재 약 7천억엔의 해외 콘텐츠매출액을 2020년까지 2조~3조엔으로 늘릴 계획
- 경제산업성은 12일 콘텐츠 관련기업 15개사와 도시바, 이온, 일본항공 등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. 콘텐츠기업과 주로 소비재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결합, 쌍방의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시장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임.
- 현재,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의 콘텐츠는 많으나, 대부분은 콘텐츠를 가진 기업이 단독으로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동북지역 부품중소기업, 「아쿠아」 효과로 활기

- 지진피해 지역인 동북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도요타자동차의 신형 하이브리드 차 「아쿠아」의 판매호조로 활기를 띄고 있음. 이와테현에서 아쿠아 조립용 부품을 공급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주가 급증
- 도요타는 동북지역을 본사가 있는 아이치현, 큐슈북부에 이어 국내 3대 거점으로 설정하여 지역기업과의 거래확대를 계획하고 있음
 - 특히, 반도체 및 전자부품 관련 기업들은 전력난과 엔고 등으로 완성차 업체나 전기기기메이커들의 해외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주 지속적으로 감소
-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은 모처럼 찾아온 사업기회와 도요타와 거래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
 - 품질과 코스트에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도요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과 채산성 확보를 양립시켜야 하고, 동북지역이 민간투자촉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지역중소기업들과 이 지역에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

□ NEC, 인건비 절감을 통한 고비용구조 개선

- NEC가 경영재건을 위해 노조측에 일반사원의 임금 4% 인하를 제안, 관리직 임금인하분도 포함 연간 100억엔 규모의 인건비 절감을 추진
- NEC는 통신, IT, 사회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재건을 꾀하고 있으나 고비용구조 혁파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향후 수비형 사업에서 공격형 사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있음
- NEC는 이렇다 할 성장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, 사업분리를 추진, 2009년 결산기에 4조엔(연결베이스)이상의 매출액이 금년 3월 결산기에 3조 1천억엔까지 감소, 1000억엔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

□ 아사히카세이, 미국 의료기기 대기업 매수

- 아사히카세이는 미국의 의료기기분야의 구멍구급기기 대기업인 줄 메디컬을 22억 1000달러에 매수하기로 발표
- 아사히카세이는 의약의료 사업을 화학과 주택에 이어 주된 수익사업으로 선정, 인구의 증가고령화로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시장을 공동 개척하기로 함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경제산업성, 환경도시 수출 지원

-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들의 인프라수출 관련 18개 지원사업을 결정. 중국과 베트남에 스마트커뮤니티(환경도시)사업을 중심으로, 설비나 시스템 수출만이 아니고, 현지 토지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특징
 - 수익기회 확대와 함께 인프라정비 관련 수주도 확실하게 채긴다는 의도임
- 토지개발 단계에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태국에서 3개 스마트커뮤니티 사업, IT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시설이나 시스템을 일괄 정비,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는 것임.
- 경제산업성이 토지매수나 구획정리, 기업유치 등과 같은 토지개발업무 관련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,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함으로써 설비나 운영 등 상품수주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
 - 인프라수출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 민·관 합동으로 수주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.

□ 신흥국 중간층 겨냥한 전략 수립

- 경제산업성이 13일, 아시아 등 15개 신흥국에서 소비를 견인할 중간층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, 향후 TV나 세탁기 등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
- 경제산업성은 FTA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일본기업들의 해외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6월까지 신흥국의 중간층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할 방침
- 조사결과는 「신 중간층 확보전략 연구회」에 제시할 예정인데, 연간 세대소득이 15000달러~35000달러인 상위중간층은 중국 및 인도 등 15개 신흥국을 포함, 약 2.5억명에서 7.7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시산결과를 제시
- 신흥국에서 중간층이 급증하는 시기는 일본의 1960~70년대에 해당. 세탁기, 냉장고, TV 등 내구소비재의 보급과 함께 의류, 교육, 의료비 지출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

◆ 보고서 리뷰

『글로벌 모노즈쿠리 프로젝트 : 최종보고서』

산업경쟁력 간담회, 3월13일

□ 모노즈쿠리의 신개념

- 신흥국으로 중심축 이동, 글로벌화 등에 대한 국내산업의 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, 「신흥국들의 수요를 내수로 간주하는 모노즈쿠리 체제」를 구축, 신흥국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「2극 포지셔닝 전략」을 실시
- ① 신기능, 고객가치에 기초한 신제품 개발 : 코모디티화(commoditization)를 늦추는 정책으로 국내산업의 양산체제를 최대한 연장시킴으로써 산업공동화를 방지 (국내산업이 조기에 양산체제에 들어갈 경우 공동화 가능성이 높아짐)
- ②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든 코모디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, 유연하게 해외생산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. 이에 해외생산의 과제를 명확히 적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
- ③ 해외생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국내로 환류시켜, 국내 제품개발에 사용

□ 민·관의 역할 분담

-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, 민간의 역할,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제언으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
- ① 이노베이션 관점 : 과거 프로세스·이노베이션 위주의 기술적 우위성이나 경쟁력 강화에서 프로덕트·이노베이션 위주의 기술적 우위성이나 경쟁력 강화로 전환
- ② 신제품 개발 촉진 : 국내시장 창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제품의 완성도 향상과 사업모델 구축
- ③ 현지정보 및 현지제품 개발에 유용한 정보, 기술을 현지와의 산학연대 등을 통하여 제공기관 및 이들을 총괄하는 국내거점 설립
- ④ 해외생산과제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민간이 분담하는 한편, 현지정부와 연대한, 서플라이어를 포함한 수직적 통합의 현지 생산특구 구축은 정부가 분담

- ⑤ 레질리언스(resilience:강인함)의 관점에서 검증 : 레질리언스 향상은 각 기업들이 BCP(Business Continuity Planning)로서 추진해야 하나, 국가전략상 중요한 부품 등은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확보 관점에서, 국내를 포함한 여러 곳에 생산체제를 구축
- ⑥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검증 : 일본은 미국·유럽에 비하여 프로젝트 추진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, 정책적으로 개선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 특히 기준·규격의 책정·운용에 관련 된 전문가 등의 인재육성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중요

*출처:<http://cocn.jp/common/pdf/thema43-L.pdf>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일본제조업의 과제와 방향성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3월10일

*출처: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sl_info/management/pdf/news201203.pdf

- (2) 『글로벌 모노즈쿠리 프로젝트 : 최종보고서』 산업경쟁력 간담회, 3월13일

*출처:<http://cocn.jp/common/pdf/thema43-L.pdf>

- (3) 『산업활동 분석(2011년)』 경제산업성, 3월10일
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statistics/toppage/report/bunseki/oldrepo_23.html

- (4) 『2011년판 정부개발원조 백서』 외무성, 3월10일

*출처:http://www.mofa.go.jp/mofaj/gaiko/oda/shiryo/hakusyo/11_hakusho_pdf/index.html

- (5) 『신에너지 산업연구회 중간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3월13일
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kenkyukai/energy/new_energy/report01.html

- (6) 『중소기업 해외전개 지원 대강(개정판)』 경제산업성, 3월13일

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1/03/20120312003/20120312003-2.pdf>